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안내
  - 12월16일 성례주일  
세례: 송윤철, 이미경, Evelyn Song, Anderson Choi  
입교: Eunice Ahn, Chris Ahn, Elisha Choi, Eliana Choi, Dael Ki, Daniel Seong, Janice Seong
  - 12월23일 성탄주일
  - 12월31일(월) 11 pm 송구영신 예배
- 교육부 공고
  - 학년말 학부모회의: 오늘 친교 후
  - 1층 로비에서 Food Donation Drive 진행중입니다.
- 공동의회 공고:
  - 일시/장소: 오늘 예배 후 본당
  - 안건: 장로 후보 선출
- 2019 단기선교:
  - 기간: 2월18일(월)-22일(금)
  - 장소: 혼두라스
  - 안건: 장로 후보 선출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홍승용 집사 (이사야 12:2-6)

이번 주 친교: 김은영 집사, 이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추원정 집사, 윤정호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 ----- 이민영 목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계 (Rev.) 1:1-9; 17-19**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266장 (통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말 (Mal) 3:1-4 ----- 황혜영 집사  
 찬양(Choir) -----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계 (Rev.) 1:1-9; 17-19**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27장 (통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복의근원 (신명기 28:8-14)**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기 백성된 사람들이(9절) 우상의 섬기는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8절) 주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정도와 분량은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쏟아부으십니다.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의 사랑의 분량만큼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듯 하나님 마음 속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더 구하고 바랄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창고에 더러운 복이 없고 하나님 마음 속에는 거룩치 않은 복은 없습니다. 복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약 4:2)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약 4:3).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구할 때 우리 기도가 거룩해 지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원망치 말고,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도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내가 얻는 복보다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려 받는 은혜의 복이 더 좋고 확실하다면, 그 복을 받을만한 사람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보물창고를 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것들보다도 그의 성민이 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댓가를 요구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것이다”라며 아버지를 닮은 아들 되기를,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기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댓가로 복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민된 복을 받은 우리의 운명이고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만 누리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꾸어주는 사람이 악하면 세상이 괴롭습니다(잠 28:12; 29:2). 제대로 된 머리, 의롭고 지혜롭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려야, 얼마나 창고를 열어 구제해야 세상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진작부터 고아들의 아버지셨고, 영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은 지식과 믿음과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잘 믿어 혼자 복받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 잘됐습니다. 복 받았습시다. 이제는 그 복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받은 복을 말아먹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느냐,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